**MMF 단기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로 수익을 내는 상품**

CP 기업어음 : 초단기 우량회사 채권 , 1년이내 채권이기에 Money Market으로 구분

RP 환매조건부채권 : 국채를 단기로 쪼갠것

**CP**

기업어음(CP)은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보통 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데, 시중에서 거래하는 CP상품은 이 금융기관들이 해당 어음에 묶인 자본을 융통하기 위해 이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파는 것.

CP의 상승

-기업이 돈을 융통하기 어려움

-주식시장에 부정적

CP의 급락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 경기 회복 가능

-주식시장 호재

INDEX와 CP금리의 관계

* ELS의 기초자산인 주요국 주가 지수가 급락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가 커짐
* 증권사 입장에서는 ELS발행액보다 많은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한다는 뜻
* 증거금이 부족하고 이에 마진콜이 발생
* 보통 증권사들에 마진콜이 발생하면 기업어음CP등과 같은 단기자금 조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곤 함(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원화 자금 조달)
* 증권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진행으로 시장의 CP금리가 상승

CP의 발행주체는 결국 증권사, 자산유동화채권이고

CD(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중장기적 대출자금의 부족은 CD로 해결)

두 금리의 스프레드는 은행권의 자금 조달 금리와, 제 2금융권 조달 금리의 차이

* 격차가 벌어짐 = 시중유동자금이 상대적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쏠림

**RP**

환매조건부채권, 이 또한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통 1~3개월 정도. 투자자에게 팔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붙여 만기시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증권의 유동성을 높임

**중앙은행과 RP**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에 rp를 판매

이는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콜금리란?

금융회사들끼리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 : 콜시장

단기금융시장 중 대표적

그런데 보통 하루를 만기로 빌려주는 초단기 자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팔아서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 부족 시에는 RP를 사들여서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

이는 금융시장 참여자를 위해(즉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하기도 함.

* 왜냐하면 국공채, 회사채처럼 만기가 3~5년 정도로 길고 거래단위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인 상품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1~6개월 정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회사채 직접매입과 CP매입의 차이 역레포

<https://www.youtube.com/watch?v=MJIQ-IoUwMU&t=10s> 17분 부터 나오는 내용

<http://www.intr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6029>